

In Dubai, cultures meet and mingle, resulting in a vibrant, multifaceted destination perfect for travelers combining business with pleasure. Discover the charm of Dubai through Dubai Expo 2020.

WRITTEN BY NATASHA AMAR  
PHOTOGRAPHY BY CHRISTOPHER PIKE

두바이, 무한한 가능성의 땅

# DUBAI:

## A LAND OF INFINITE POSSIBILITIES



다양한 문화가 조우하고 섞이는 두바이엔 생기 넘치고 다채로운 장면이 가득하다.  
일과 여행을 함께 즐기고 싶은 여행자에게 이 도시는 완벽한 목적지가 되어준다.  
2020 두바이 엑스포와 함께 두바이의 매력에 다가가는 법.





1

19세기 중반 두바이의 옛 모습을 고스란히 간직한 알 파히디 역사지구 The Al Fahidi Historical Neighbourhood retains the appearance of 19<sup>th</sup> century Dubai.

2

세상에서 가장 큰 액자, 두바이 프레임. 축구장만 한 크기로 자빌 공원에 가면 만날 수 있다. The Dubai Frame, located in Dubai's Zabeel Park, is the largest frame in the world.

3

아랍의 전통 요리를 맛볼 수 있는 아라비안 티 하우스 Arabian Tea House is the perfect place to discover traditional Emirati cuisine.

4

2020 두바이 엑스포 전시장 안 풍경. 미래의 한 장면을 엿볼 수 있다. At this exhibit at the Dubai Expo, visitors can get a glimpse into the future.

5

두바이엔 매력적인 해변이 많아 휴양지로도 인기가 높다. Dubai's oceanfront location makes it an attractive holiday destination.

1960년대까지 고기잡이, 진주 수확, 무역에 의존하는 촌이던 두바이는 이제 완벽한 사회기반시설과 국제적인 문화, 그리고 종교적인 관용 아래 세워진 사회를 갖춘 첨단 도시로 변모했다. 세계에서 가장 높은 건축물인 부르즈 칼리파를 비롯해 경이로운 건축공학의 각축장으로 감탄을 불러일으키는 경관은 이 도시 사람들의 야망, 혁신, 독창성 그리고 투지의 절정을 보여준다. 비약적인 발전과 국제도시로서의 면모를 고려했을 때 세계박람회의 개최지로 두바이보다 더 적절한 도시는 없을 것이다. 전 세계 192개국이 보다 나은 미래를 위한 창조적인 해답을 찾기 위해 한 자리에 모이는 이 국제 행사는 2021년 10월 1일에 개막해 2022년 3월 31일까지 이어진다. 이번 행사에선 '마음의 연결, 미래의 창조'라는 슬로건 아래 과학과 기술, 건축, 문화 그리고 예술 분야에서의 최첨단 혁신 기술을 선보인다.

모빌리티 파빌리온 '알리프'에서 관람객들은 로봇, 드론 등 첨단 기기를 경험하고 아랍에미리트의 우주 프로그램에 대해 배울 수 있다. 2020 두바이 엑스포 전시 최고 책임자 마르잔 파라두니는 알리프에 대한 기대감을 다음과 같이 밝혔다. "이 '놓쳐선 안 될' 파빌리온은 아랍이 모빌리티 분야에서 권위국이라는 사실을 알리는 기회가 될 거예요. 사람들에게 우리의 성취를 보여주고 그들의 인식을 바꿀 수 있게 돼 대단히 자랑스럽습니다. 특히 아랍의 젊은 세대들이 이곳에서 시간을 보내며 영감을 받았으면 합니다. 우리에게 불가능한 것은 없으며,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자극을 받고, 전 세계 사람들과 교류하며 함께 힘을 합치면 인류 앞에 긍정적인 미래가 펼쳐질 것이라는 기대감도 느낄 수 있길 바랍니다." 엑스포의 매력적인 전시들과 함께 두바이의 유서 깊은 동네에서 이 나라의 역사 깊은 전통도 경험해보자. 음식, 예술, 쇼핑부터 숨 막히게 아름다운 도시의 마천루까지, '문화의 용광로'라 불리는 두바이의 매력에 깊이 빠져들 시간이다.

▶ 대한항공 항공편을 타면 두바이에 바로 도착한다.  
You can fly directly to Dubai with Korean Air.

A fishing, trading and pearl-diving village until the 1960s, Dubai has since transformed into a pioneering metropolis, boasting excellent infrastructure, cosmopolitan culture and a society built on religious tolerance. Its awe-inspiring cityscape of engineering marvels — including the Burj Khalifa, the world's tallest skyscraper — is a culmination of the people's ambition, innovation, creativity and determination.

Considering these qualities, there couldn't be a better city than Dubai to host Expo 2020, a global event that has brought together 192 countries to find creative solutions for a better tomorrow. The event — which kicked off on October 1, 2021, and will continue until March 31, 2022 — showcases innovations in science, technology, architecture, culture and art, under the theme Connecting Minds, Creating the Future.

At the Expo's Alif – The Mobility Pavilion, visitors can experience incredible demonstrations involving robots and drones and learn about the UAE's space program. Speaking about Alif, Marjan Faraidooni, chief experience officer of Expo 2020 Dubai, says, "We are proud that this must-see pavilion celebrates the Arab world as a leading light in mobility across the ages, changing perceptions of what this region has achieved. We hope that visitors, especially young Arabs, will leave this experience inspired — realizing that anything is possible, motivated to make a difference in our world and looking with optimism to a future when we connect and work together on a global scale." Despite such tempting exhibits, it's worth venturing into the city to get a sense of Dubai's heritage in its oldest neighborhoods; experience its melting pot of cultures through dining, art and shopping; and gaze at the breathtaking skyline.







## 두바이 블레저를 위한 가이드

### 24 hours in DUBAI

#### 9 A.M. 코트야드 카페에서의 아침 식사 Breakfast in a Courtyard Café

‘알 파히디 역사지구’는 두바이에서 가장 오래된 건축물과 옛 풍경을 간직한 골목들이 미로처럼 얹힌 곳이다. 예전엔 진주 상인들의 거주지였던 이곳엔 이제 매력적인 박물관과 갤러리, 카페들이 들어서 있다. 첫 행선지로 ‘이라비안 티 하우스’를 추천한다. 1920년대에 지어진 구옥의 뜰에 들어선 이곳에 가면 푸른 벤치와 고리버들 나무로 짠 의자, 세월의 흔적이 느껴지는 사진들, 살랑이는 레이스 커튼이 당신을 반갑게 맞이할 것이다. 로컬 음식에 호기심이 많은 미식 모험가라면 계피와 사프란, 중동의 향신료 중 하나인 소두구로 양념한 면 위에 오믈렛을 얹어내는 아랍의 전통 음식 ‘발라리트’, 달콤한 대추야자와 사탕수수를 정제한 당밀 시럽을 뿌린 팬케이크 요리 ‘체밥’으로 꾸러진 ‘에미라티 브렉퍼스트 트레이’를 놓치지 말 것.

At Al Fahidi Historical Neighbourhood, labyrinthine alleyways run between the oldest buildings in the city. Begin at Arabian Tea House, in the courtyard of a 1920s house decorated with blue benches, wicker chairs and old photographs. The Emirati breakfast tray

is a worthy introduction to local cuisine, offering *balaleet*, vermicelli flavored with cardamom, cinnamon and saffron, and topped with an omelet as well as *chebab*, pancakes drizzled with date molasses.

#### 10 A.M. 전통시장과 박물관 유랑 Explore Souks and Museums

아랍에미리트 가정집을 개조해 꾸민 커피 박물관에 가보자. 커피에 얹힌 문화, 에티켓과 함께 이 나라 사람들에게 커피가 어떤 의미를 가진 음료인지 배울 수 있는 곳이다. 조금만 내려가면 XVA 아트 호텔 & 카페의 현대미술 갤러리에 닿는다. 중동의 신진 예술가, 이름 높은 작가들의 작품을 감상할 수 있는 곳이다. 이후 이 도시의 중심지였던 두바이 크리크 주변에 자리한 직물 시장으로 향할 것. 오랜 역사를 간직한 시장을 천천히 둘러본 후, 현지인들처럼 1디르함을 내고 수상택시 ‘아브라’나 전통적인 나무 보트를 타고 향신료 시장으로 건너가자. 시나몬과 쿠민의 강렬한 향이 코를 찌르고 가판대 위에 켜켜이 쌓은 강황과 사프란 덩이가 눈길을 훔치는 이곳에서 오감이 이끄는 대로 시장 곳곳을 누벼보길 권한다.

Step into the Coffee Museum to learn

about the significance of the beverage and the related etiquette in local culture. A few doors down, at XVA Art Hotel and Café’s art gallery, you can see the work of renowned and emerging artists from the Middle East. Then, walk through the old Textile Souk to emerge at the Dubai Creek. For just a dirham (\$0.27), take a traditional wooden boat across to the Spice Souk in Deira. With the aromas of cinnamon and cumin wafting through the market and colorful mounds of turmeric and saffron beckoning from stalls, it’s hard to decide whether to be led by smell or sight.

#### 2 P.M. 현대적인 두바이와 만날 시간 A Taste of Contemporary Dubai

점심 식사할 곳을 찾는다면, ‘보카’를 추천한다. 다채로운 수상 경력을 자랑하는 이곳은 스페인 요리에서 영감을 받은 음식을 선보인다. 헤드 셰프인 매트즈 스티니센은 에미라티 부시리와 오만만에서 채취한 담바 베이 굴 등 현지에서 생산된 지속 가능한 식재료를 사용해 요리를 한다. 계절 요리와 해물 파에야, 문어 구이 등의 단품도

훌륭하지만, 평일에 제공하는 비즈니스 런치도 가성비가 좋다. 하이엔드 패션, 코스튬 디자인 슈즈, 현지 디자이너들의 주얼리, 그리고 다른 곳에서는 결코 찾을 수 없는 특별한 제품들을 쇼핑할 수 있는 부티크가 즐비한 ‘게이트 애비뉴’는 식후 산책지로 제격이다. ‘로 뮤직 스토어’는 신보는 물론 아랍 뮤지션들의 음반을 포함해 다양한 빈티지 LP판 컬렉션을 갖추고 있다. 걷고 걷다 ‘달콤한’ 것이 당기면 럭셔리 쇼콜라티에 ‘마카’의 초콜릿으로 에너지를 충전할 것.

For lunch, head to award-winning Boca, where Spanish-influenced dishes dominate the menu. The restaurant uses locally sourced, sustainable ingredients such as Emirati kingfish and Dibba Bay Oysters from the Gulf of Oman to create fantastic seasonal dishes, and offers an à la carte menu with delicious seafood paella and grilled octopus. Work it all off at Gate Avenue, where cool boutiques sell high-end, custom-designed shoes; jewelry by local designers; and other unique products. At Raw Music Store you can browse vintage and new

vinyl records, including albums by Arab artists. Next, sample French chocolate at luxury Emirati chocolatier Makaw.

#### 4:30 P.M. 환상적인 전망 즐기기 A View Like No Other

두바이의 정수와 만날 시간이다. 더 팜 타워 52층에 위치한 높이 240m의 전망대 ‘더 뷰’에 오르면 야자수 형태의 인공섬 ‘팜 주메이라’가 한눈에 보인다. 등직한 나무둥치, 초승달처럼 가늘게 늘어진 잎, 하늘빛 아라비아해와 점점이 흩어진 붉은 지붕 집, 휘황찬란한 럭셔리 호텔들을 바라보고 있으면 두바이가 자랑하는 ‘불굴의 정신’이 명료하게 다가올 것이다. 세계에서 가장 큰 관람차 ‘아인 두바이’, 명실상부한 랜드마크 ‘버즈 알 아랍’ 등이 있는 두바이 마린의 풍경도 한눈에 담을 수 있다.

Take in the 360° views of Palm Jumeirah, the iconic manmade island shaped like a palm tree, from The View at The Palm, the new 240m-high observation deck at The Palm Tower. Gazing at the island, dotted with red-roofed villas and luxury hotels and surrounded by the azure

Arabian Sea, it’s impossible not to feel a sense of Dubai’s indomitable spirit. Walk around the deck to spot other landmarks, such as the Dubai Marina and the sail-shaped Burj Al Arab.

#### 6:30 P.M. 장엄한 해넘이와 한잔 Cocktails at Sunset

두바이의 트렌디한 루프톱 바 ‘쏘비’에서 로즈골드빛 일몰과 함께 한잔하며 피로를 풀어보자. 대담한 벽화와 마이애미 스타일로 꾸민 실내를 지나 바깥 테라스에 자리를 잡으면 전망 좋은 바의 진수를 느낄 수 있다. 저녁 식사로는 라틴아메리카 스타일로 만든 핀토빈을 곁들인 나초, 피시타코 그리고 점보 새우 요리를 추천한다. 깊어가는 밤과 함께 분위기가 무르익으면 이곳을 떠나고 싶지 않아질지도 모른다.

Kick back with a few sundowners under a rose-gold sunset sky at the outdoor terrace of rooftop bar SoBe. The menu features Latin American dishes, and the vibe picks up as the evening progresses — you won’t regret staying longer than you intended.